



❖ 금주 포커스

中, 증치세 개편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1

❖ 전문가 칼럼

외상매출신용보험을 이용한 채권관리 방법(Ⅲ) / 4

❖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경기부양 '먼저'...규제·세금·임금인상 '일단 정지' / 7

경기부양 다급해진 중국, 금리 11년만에 최대폭 인하 / 11

중국 방직품 및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할 듯 / 17

中,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 21

신 증치세잠행조례 및 영업세와 소비세조례(번역문) / 25

[경제동향]

中, 흔들리는 음료시장 노리는 외자기업 / 26

中 광둥성 투자 홍콩제조업 경영 악화 심각 / 32

中, 쓰촨성 '11가지 조치, 3조 위안 투자'로 내수 진작 나서 / 38

[단신뉴스]

세계은행, 中 2009년 GDP 성장률 7.5% 전망 / 43

❖ 금주의 연구보고서

올해 해외시장 강타한 히트상품은? / 44

❖ 투자진출 A to Z

현지 투자법인 합병 절차는? / 48

조업중단일의 임금지급문제 / 51

[공지사항] OIS(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안내문 / 57

베이징 투자환경 설명회 및 산업교류회 참가 안내 / 58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금주 포커스

中, 증치세 개편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허가류 기업은 설비 매입세액 공제가능해 이득 -
- 수출 위주기업은 매입세액이 없어 단기적으로 자금 부담될 수도 -

KOTRA 칭다오KBC 고봉숙 과장(gobongyi@dreamwiz.com)

□ 주요 정책 변화

○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취소

- 2009년 1월부터 발효되는 증치세제 개편(고정자산 매입세액에서 공제가능)으로 수입설비에 대한 면제 정책이 취소됨.
- 취소되는 정책은 ‘수입설비 세수조정정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국발 1997 37호)’와 ‘외자투자 진일보 장려를 위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판 공청통지(국판발 1999 73호)’임.
- 전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와 외자 투자프로젝트의 수입설비에 대해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
- 후자는 이미 설립된 장려류 및 제한류 외자투자기업, 외자투자연구개발중심, 선진기술형 및 제품수출형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조 시 기비준받은 생산경영 범위 내에서 중국 내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자체 사용 설비 및 기술, 부품을 수입할 경우 37호 문건에 의거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중국산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정책 취소

- 73호 문건에 따르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자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시 동종의 수입설비가 면세목록 범위에 포함될 경우, 중국산 설비 증치세를 전액 환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이미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기업 소득세 감면정책이 취소됐고, 이번 증치세 개편으로 외자투자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증치세 환급정책이 취소됨.

□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허가류 외자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 허가류프로젝트는 기존의 수입설비 증치세 면제 및 중국산 설비 증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과거 설비를 구매하면 원가로 계산해야 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해 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데 유리함.

○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 단기적으로는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와 기타 장려류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내수 위주 또는 내수와 수출 비율이 어느 정도 나뉜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는 수입설비증치세와 중국산설비 증치세 환급 정책이 취소됐으나, 설비를 구매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음.
- 그러나 수출비중이 비교적 큰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는 증치세 매출세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신 정책 실시 후 설비를 구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방법이 없게 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액의 고정자산 매입세 공제예정분이 형성돼 자금 압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 제품 수출비중이 크며, 증치세 면제·공제·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기계설비를 매입세액으로 직접 공제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관련 실시세척이 발표되면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설비 구매 증치세 매입세액을 점차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중국 세무총국은 이번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및 중국산 설비 구매 시 환급 취소에 대해 이러한 정책들이 과거 중국이 생산형 증치세제 틀에서 외자 유치와 국외 선진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었으나, 수입면세 설비 범위가 광범위해 자주개발 및 설비 국산화·중국 장비제조업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고, 내자기업의 수입설비 면세범위가 외자기업에 비해 훨씬 적어 불공평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과 함께 취소한다고 밝힘.
- 한편 칭다오시 대외경제무역협작국은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 외자기업은 보세항구나 수출가공구에 투자를 하면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 정책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며, 보세항과 수출가공구에 이러한 장점을 이용한 외자유치 강화와 기존 기업의 보세항이나 수출가공구에 대한 이전을 독려하고 있음.

자료원 : 칭다오시외경무국, 중국세무총국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전문가 칼럼

외상매출신용보험을 이용한 채권 관리방법(Ⅲ)

상해안국보험중개 유진원 총경리(way4us@naver.com)

최근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중국 또한 지난 26일 기준금리 1.08%인하를 발표하는 등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하여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사전대응 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반기만 해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제위기에 대한 예측이 없었으며, 중국에서도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파급효과, 금융위기 등의 상황이 진전되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공황 수준의 경기인식을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2~3개월여만의 일이었다. 이러한 격동 속에 일개 기업이 기존 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외상매출신용보험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이 번에는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A가 제품을 외상으로 기업 a, 기업 b, 기업 c 에게 판매하며 외상채권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A는 동 보험의 핵심사항인 다음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 보상비율 : 사고시, 보험사가 사고금액 중 보상하는 비율
- 기업 별 신용한도 : a, b, c 각각에 대한 보상한도
- 누계신용한도 : A가 보상받을 수 있는 연간 누계 보상한도
- 면책금액 : 보상 시 공제받는 금액, 사고금액이 면책금액을 초과하면 면책금액을 공제하지 않음

A가 보상비율은 90%, 기업 별 신용한도를 a, b, c 에 대하여 각각 5백만, 4백만, 9백만으로 설정하였고, 누계신용한도를 1천만으로 하였으며, 면책금액은 5만원으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외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가 시간 순으로 a 3만원, b 5백만원, c 8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럴 경우 보상받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a 3만원 사고 : 보상받지 못함 (면책금액 이하)
- b 5백만원 사고 : 3백 6십만 보상 (신용한도, 보상비율 90% 적용)
- c 8백만원 사고 : 6백 4십만 보상 (누계신용한도 1천만 적용)

위와 같이 사고 금액을 무조건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보험조건 협의 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확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에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계약자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많은 기업들의 외상채권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주기를 고려 시, 더더욱 커다란 도산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만일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운명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많은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보험사는 계약자의 거래기업 각각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며, 재무상 비정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전 통보를 통해 해당기업의 신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외상채권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사로부터 신용한도 조정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도 통보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기업에 대한 통보는 해당 기업의 신용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정보를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판매 정책 재검토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보험사는 계약자와의 공동이해당사자로서 급격한 위험변화에 대하여 공동대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형 재난 후 파산하는 보험사가 속출하곤 한다. 이는 위험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아시아권의 보험사들에게서는 그러한 현상이 적었다. 기업이나 개인의 실제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율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서는 신용보험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용판매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채권의 안전성 확보, 거래처의 신용상태 변동 파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올 겨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유난히 추울 것 같다. 추울수록 병충해가 줄어들어 다음 해 농사는 풍년이 된다고 한다. 내년의 풍년을 기대하며 다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하겠다. /끝/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경기부양 '먼저'...규제·세금·임금인상 '일단 정지'

- 가공무역 보증금제도, 행정사업성 비용징수 등 잠정 정지 -

KOTRA 다롄KBC 김우정 과장(yuting95@kotra.or.kr)

□ 중국 정부 경기 부양에 팔 걷어부쳐

-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정책을 내놓고 있음.
- 최근 중앙정부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각 지방 정부의 투자 계획을 모두 합치면 총 18조 위안에 달함.
 - 윈난성 : 향후 5년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철도 건설 등에 3조 위안 투자 계획
 - 광둥성 : 주장삼각주 철로 등 교통 인프라에 총 2조3000억 위안 투자 계획
 - 랴오닝성 :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시설 등에 총 1조3000억 위안 투자 계획

□ 가공무역 보증금 제도 잠정 정지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21일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가공무역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해야 하는 제도를 잠정 정지한다고 발표함.
 - A류, B류 기업은 수출제한목록의 1853개 품목과 수입제한목록의 272개 품목의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에 직접 예치하지 않고 계좌만 개설하는 형태로 전환함.
 - C류 기업은 종전과 같이 100% 예치해야 함.

- 이번 공고에 해당되는 2125개 품목은 전체 수입제한목록의 95%에 해당됨.
 - 2007년 7월 23일 발표된 제 44호 공고에 포함됐던 제한목록 가운데 122개 품목의 경우에는 A류 기업은 보증금 예치 정지, B류 기업은 50% 예치, C류 기업은 100% 예치로 변경됨.
 - 중서부 지역의 경우 기존과 같이 A류, B류 기업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음.
 - 가구류(17개 품목)는 가공무역 제한목록에서 제외시킴(첨부 참조).
 - 2008년 12월 1일 이전에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거나 해관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공고를 적용하지 않음. 또한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해관 특수지역에도 적용하지 않음. 주 : A류 기업은 해관 직원이 파견돼 공장을 감독했거나 네트워크 관리 방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무역업무를 행한 기업 또는 항공기, 선박 등 특수산업의 가공무역 기업을 일컬음. B류 기업은 일반 가공무역 기업이며, C류 기업은 이전에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임.
- 가공무역 보증금 제도는 자금을 길게는 반 년 정도까지 묶어놓음으로써 가공무역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음.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약 185억 위안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 취소 및 정지

- 중국 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0항의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공고를 발표함.
 - 발전개혁, 교육, 공안, 민정부문 등의 비용으로 ‘수출입 화물 허가증비’, ‘노동계약 증서비’, ‘농업 화학제품 행정보호비’ 등임.
 - 주로 노동, 취직, 건설, 무역 등과 관련된 행정 비용임.
- 이는 재정부의 3000억 위안 수준 감세정책 중 일부로 발표된 것이며, 이 정책을 통한 감세효과는 약 2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인상도 동결?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17일 최저임금을 잠정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중국의 최저임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각종 보험 등이 추가돼 중국기업의 가장 풀기 어려운 부담이 돼 왔음.
 - 중국 정부는 경제위기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잠정 동결 및 일시적인 의료보험비율 인하를 결정했음.
 - 중국 노동학회 관계자는 “대략 1년 이내에는 각 지방의 최저임금 조정은 없을 것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업의 자금 압박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함.

- 그러나 23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수 부양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초안에 따르면 수입분배국면을 조정해, 점차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GDP의 45% 정도 비율까지 인상시킬 것이며,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함.
 - 주된 목적은 임금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러한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임.

- 연이어 상반된 두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함. 그러나 현재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가 아닌 오히려 실업률 증가 등의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임금인상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의견임.

□ 시사점

-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산업구조 재편성 정책이 금융위기를 통해 대폭 수정됨. 중국은 단순 임가공 등의 산업을 점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실시했음. 그러나 이번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 도산·실업자 증가 등 중국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자, 지금까지의 정책을 잠정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경제안정을 찾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냄.
- 가공무역 보증금 잠정 정지, 임금 동결 등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투자기업에도 해당될 수 있는 정책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음.
 - 내수 및 수출확대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경제대책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
 - 최저임금 인상에서의 혼선과 같이 중국 정부 내에서도 각 부문 간 혼선 또는 잦은 정책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첨부 : 가구류 17개 품목

자료원 : 상무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각종 언론보도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경기부양 다급해진 중국, 금리 11년만에 최대폭 인하

- 금리 1.08% 인하, 기준율 1% 인하 -
- 시장에 자금 유동성 확보와 소비심리 회복 위한 것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 금리 인하폭 IMF 이래 최대 폭

- 11월 26일, 중국 인민은행은 11월 27일부터 위안화 예대금리를 1.08%p 인하하며, 기타 대출금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고 밝힘.
 - 아울러 개인주택공적금 대출이율은 0.54%p 인하했으며, 이 가운데 5년 이하 주택공적금 대출이율은 기존 4.05%에서 3.51% 인하됐고, 5년 이상은 4.59%에서 4.05%로 인하됨.
 - 이번 조치는 11년(1997년) 이래로 1년 만기 위안화 대출금리 인하폭이 가장 큰 것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중국 실물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1997년 10월 23일 중앙은행의 대출금리 인하폭은 1.44% 기준율 1.8%였음).
 - 올 들어, 지난 3개월간 4차례에 걸친 대출금리 인하와 3차례에 걸친 기준율 인하가 단행됨.
- 또한 12월 5일부터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교통은행·우정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 금융기구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1%p 인하하며, 중소형 저축 금융기구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2% 인하한다고 밝힘. 원환지지 재해지역과 농촌금융기구에 대해서는 우대 지급준비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위안화 예대 금리 조정 현황

구분	최근 조정 시기							
	2007.5.19	2007.7.21	2007.8.22	2007.9.15	2007.12.21	2008.9.15	2008.10.8	2008.11.26
보통예금	0.72	0.81 (0.09)	0.81	0.81	0.72 (-0.09)	변경없음	변경없음	0.36

정기예금								
3개월	2.07 (+0.09)	2.34 (+0.27)	2.61 (+0.27)	2.88 (+0.27)	3.33 (+0.45)		3.15 (-0.18)	1.98
6개월	2.61 (+0.18)	2.88 (+0.27)	3.15 (+0.27)	3.42 (+0.27)	3.78 (+0.36)		3.51 (-0.27)	1.98
1년	3.06 (+0.27)	3.33 (+0.27)	3.60 (+0.27)	3.60 (+0.27)	4.14 (+0.27)	변경없음	3.87 (-0.27)	2.25
2년	3.69 (+0.36)	3.96 (+0.27)	4.23 (+0.27)	4.23 (+0.27)	4.68 (+0.18)		4.41 (-0.27)	3.06
3년	4.41 (+0.45)	4.68 (+0.27)	4.95 (+0.27)	4.95 (+0.27)	5.4 (+0.18)		5.13 (-0.27)	3.6
5년	4.95 (+0.54)	5.22 (+0.27)	5.49 (+0.27)	5.49 (+0.27)	5.85 (+0.09)		5.58 (-0.27)	3.87
단기대출								
6개월 이내 (6개월 포함)	5.85 (+0.18)	6.03 (+0.18)	6.21 (+0.18)	6.48 (+0.27)	6.57 (+0.09)	6.21 (-0.36)	6.12 (-0.09)	5.04
6개월~1년 (1년 포함)	6.57 (+0.18)	6.84 (+0.27)	7.02 (+0.18)	7.29 (+0.27)	7.56 (+0.09)	7.20 (-0.27)	6.93 (-0.27)	5.58
중장기대출								
1~3년	6.75 (+0.18)	7.02 (+0.27)	7.20 (+0.18)	7.24 (+0.27)	7.56 (+0.09)	7.29 (-0.27)	7.02 (-0.27)	5.67
(3년 포함) 3~5년	6.93 (+0.18)	7.20 (+0.27)	7.38 (+0.18)	7.65 (+0.27)	7.74 (+0.09)	7.56 (-0.18)	7.29 (-0.27)	5.94
(5년 포함) 5년 이상	7.20 (+0.09)	7.38 (+0.18)	7.56 (+0.18)	7.83 (+0.27)	7.83 (+0.00)	7.74 (-0.09)	7.47 (-0.27)	6.12

주 : 괄호 안 수치는 인상 폭인 %P

자료원 : 인민은행

-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폭이나 인하시기 등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 시장 반응임.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인하폭이 11년만에 최대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중국 경기 하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며칠 전 정부 관계자가 현 금리는 적합한 수준이라는 밝혀 금리인하 전망을 악화시킨 바 있으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앞으로도 금리와 지출을 인하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역대 기준율 조정 조치

시기	조정 전	조정 후	조정폭
2008.11.26.	16%	15%	-1.0%
2008.10.15.	16.5%	16%	-0.5%
2008.9.25.	17.5%	16.5%	-1%
2008.6.07.	16.5%	17.5%	1%
2008.5.20.	16%	16.5%	0.5%
2008.4.25.	15.5%	16%	0.5%
2008.3.25.	15%	15.5%	0.5%
2008.1.25.	14.5%	15%	0.5%
2007.12.25.	13.5%	14.5%	1%
2007.11.26.	13%	13.5%	0.5%
2007.10.25.	12.5%	13%	0.5%
2007.9.25.	12%	12.5%	0.5%
2007.8.15.	11.5%	12%	0.5%
2007.6.5.	11%	11.5%	0.5%
2007.5.15.	10.5%	11%	0.5%
2007.4.16.	10%	10.5%	0.5%
2007.2.25.	9.5%	10%	0.5%
2007.1.15.	9%	9.5%	0.5%
2006.11.15.	8.5%	9%	0.5%
2006.8.15.	8%	8.5%	0.5%
2006.7.5.	7.5%	8%	0.5%
2004.4.25.	7%	7.5%	0.5%
2003.9.21.	6%	7%	1%
1999.11.21.	8%	6%	-2%
1998.3.21.	13%	8%	-5%
1988.9.	12%	13%	1%
1987	10%	12%	2%
1985	10%로 통일		

□ 시장 반응

-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력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함.
- 아시아개발은행 장젠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완화한다는 기조를 밝힌 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며, 조정폭과 강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힘.

- 최근 통계 수치에서도 10월 거시경제 경기 지수가 94.6로 전월동기 대비 10.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기업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요 수출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미 2005년 7월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국내수요를 나타내는 국내주문지수가 전 분기 대비 3.7%p 하락해 중국 경기의 실물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금리인하는 실질효과보다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결심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경제회복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있어, 대량의 자금을 지급준비율로 중앙은행에 넣어놓고 대출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1.895에서 1.62%로 인하함으로써 은행이 중앙은행에 묶어 넣었던 자금을 풀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기업들이 민간 고리대금업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가 30%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현금고갈에 따라 도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 금리 인하가 증시에 호기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소비심리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저축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화이트 컬러 계층의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전문 포털인 금융계의 네티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큰 폭의 금리인하와 기준을 인하의 원인을 ▷ 소비촉진, 저축수요 억제 (34.87%) ▷ 통화정책 운용을 통한 경제 성장 으로 보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이밖에도 이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 적절함(42.98%) ▷ 시가가 매우 늦었으며, 적기를 놓쳤음(37.34%)이라는 응답이 있음.
 - 금리 인하 이후 현금과 저축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 계속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비교적 안전(34.9%), ▷ 은행 예금을 대부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할 것임(34.29%)라는 응답을 보였음.

역대 금리 조정 조치 및 영향

단행 시기	주요 조정 내용	증시에 미친 영향
2008.11.26	1년 만기 예대금리 1.08%p 인하, 지급준비율 1%p 인하	11월 27일 상하이증시 2012.69p로 출발. 오전 한때 6.05%까지 상승하기도 함.
2008.10.8	1년 만기 대출이율 0.27%p 인하	10월 9일 상하이 증시 2,225.57p로 출발, 2,074.58p로 마감(0.84% 하락)
2008.9.15	1년 만기 대출이율 0.27%p 인하	9월 16일 상하이 증시 2,049.81p로 출발, 심리 마지노선 2,000p가 무너지고 1,986.64p로 마감(4.47% 하락폭)
2007.12.21	1년 만기 예금금리 0.27%p 인상, 1년 대출 금리 0.18%p 인상	12월 24일 상하이 증시 5,132.91p로 출발, 5,234.26p로 마감(2.6% 상승폭)
2007.9.15	1년 만기 예대금리 각 0.27%p 인상,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 0.18%p 인상	9월 17일 상하이 증시 5,309.07p로 출발, 5,427.17p 급상승했다가 5,421.39p로 마감(2.06% 상승폭), 상하이 증시 최고기록 갱신
2007.8.22	1년 정기예금 기준 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18%p 인상,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 0.09%P인상	8월 23일 상하이 증시는 4,876.35 p로 출발, 4,980.08p로 마감(상승폭 0.5%)
2007.7.2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27%P 인상,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7월 23일 상하이 증시는 4,091.24로 출발, 4,213.36p로 마감(상승폭 3.81%)
2007.5.19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0.27%P 인상,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 0.18%P 인상,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 0.09%P 인상	5월 21일 상하이 증시는 전날 대비 127.91P 하락한 3,902.35 p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1.04% 상승한 4,072.22P로 마감)
2007.3.18	1년 만기 예대기준금리 각 0.27%P 인상	3월19일 상하이, 선전 증시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곧 반등(상하이 2.87% 상승한 3,014.44P, 선전 1.59% 상승한 8,237.28P로 마감)
2006.8.19	1년 만기 예대기준금리 각 0.27%P 인상	8월 21일 '블랙 먼데이' 우려감이 '레드 먼데이'로 반전함(이날 상하이 증시는 1,558.10P로 마감, 0.20% 상승)

2006.4.28	대출금리 0.27%p 인상	28일 상하이 종합지수 1.66% 상승
2005.3.17	주택대출금리 인상	당일 상하이 종합지수 0.95% 하락 후 다음날 1.29% 상승, 이후 지속 하락세
2004.10.29	1년 만기 예대기준금리 각 0.27%p 인상	부진세(상하이 종합지수 1.58% 대폭 하락)
1993.7.11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 1.80%p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3.05 p 하락
1993.5.15	예금금리 평균 2.18% 인상, 대출 금리 평균 0.82% 인상	첫 거래일 상하이 27.43% 하락

자료원 : 관련언론 종합해 KOTRA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작성

자료원 : 금융계, 화신 등 관련언론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중국 방직품 및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할 듯

-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을 위한 임시방편책 -
-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일시 중단 -

KOTRA 베이징KBC 허성무 과장(goo2cu@kotra.or.kr)

□ 위기에 몰린 가공무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책

- 중국이 방직품 및 의류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또다시 인상하고, 관련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 2008년 11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통해 방직업 및 의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방직품 및 의류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14%→17%
- 비합리적인 행정비용 징수 취소
- 가공무역기업의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일시 중단
- 중앙대외무역발전기금 활용 극대화
- 은행 신용담보체계와 서비스체계 수립
- 농촌, 지진피해지역, 변경지역의 수요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꾀함.

○ 의미

-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의 방직품과 의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1537억1000만 위안으로,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방직품 대상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1%p 인상되면 방직업계는 40억 위안의 이윤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기업의 자금운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자체가 방직업 및 의류업의 산업 구조조정

과 산업고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겠지만, 도산위기에 처한 가공무역기업들의 추가피해를 막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용어 해설

○ 은행보증금대장제도

- 가공무역으로 수입되는 원재료는 일반지역에 보세화물로 보관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으로 불법유출되는 등위법행위가 자주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가공무역관리제도가 강화됐고, 가공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상품의 종류와 가공기업의 등급에 따라 보증금 적립여부와 적립금 액수가 결정됨.
- 1999년에 ‘은행보증금대장제도’가 도입됐을 때 B류 및 C류로 분류돼, 원재료 수입단계에서 보증금 납부의무를 지게 된 가공기업들은 중국정부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음.
- 중국정부는 이들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중국은행의 ‘세금지불보증서’로 보증금 지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가공무역기업 분류관리

- 중국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의 수출규모, 가공무역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에 근거해 가공무역기업을 A·B·C·D 등 4종류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대조치를 부여
- 등급분류는 위법행위의 유무와 빈도에 근거해 규정함.

가공무역기업 분류 및 유형별 은행보증금제도 적용현황

등급	분류기준	보증금 적립 및 보증금대장 관리
A	- 우량기업	- 기본적으로보증금적립및보증금대장 관리 불필요
B	- 밀수이력 없음 - 적정한 가공무역 영위	- 보증금 적립 불필요 - 보증금대장 관리 필요 관세 및 증치세의 50%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세금지불보증서 필요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이력 없음 - 위법행위 이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적립 필요 - 보증금대장 관리 필요 관세 및 증치세의 100%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세금지불보증서 필요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이력 보유 또는 - 3회이상위법행위 이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가공무역활동 정지

자료원 : 중국가공무역 매뉴얼 (KOTR)

□ 업계의 반응

-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따르면, 올 들어 세차례 시행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의 효과가 기대수 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번에 17%로 인상될 경우 효과는 두고봐야 한다고 언급함.
 - 신노동계약법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인민폐 평가절상 등 요인으로 가공무역기업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돼,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지로 기지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도 많아지고 있음.
 - 노동집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중국에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고부가가치 명품만 제조하는 것이라고 전함.

- 중국계 무역업체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 경기가 불황국면을 보이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줄어들자, 일부 가공무역기업들이 내수시장 판매허가를 받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또다른 한국기업에 의하면, 가공무역기업 대상 은행보조금대장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고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시사점

- 중국이 올 들어 이미 세차례에 걸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증치세 환급률도 17%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집약형 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문제를 방지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조치인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시행된 은행보증금대장제도로 인해 연간 80억 위안의 자금이 묶여 가공무역기업의 자금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中,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왜곡금지, 의료기능 표기금지 등 6개 조항 -
- 중국 내 한국 식품 인지도 제고의 기회, 한국 식품 기계류 수출 기대 -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 중국품질검사총국은 지난 9월 1일부로 식품 라벨링 검사 규정을 개정·시행했음.
 - 당초 이 규정을 12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분유 파동·멜라민 파동 등 연일 계속되는 식품 관련 사고로 이를 3개월 앞당겨 시행했음.
- 식품 라벨링 검사 규정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라벨링 내용과 라벨링 형식 등에 관한 내용임.
 -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요구를 제고함. 특히 첨가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식품 라벨링 규정 변경 배경

- 연일 계속되는 식품 관련 사고
 - 연초 분유 파동부터 최근 멜라민 파동까지 연일 중국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농약 만두, 표백제 찢 쌀, 발암물질 햄 등 중국 식품 관련 사건사고는 많았으나 최근 들어 심각성이 대두됐음.
 - 특히 두 달 전부터 시작된 멜라민 파동은 멜라민 공포로까지 인식되면서 중국 식품의 불안정성이 국제적으로 공개되는 계기가 됐음.
- 식품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급증
 - 중국도 소득수준이 높아지자 점점 ‘식(食)’에 대한 위생관념과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짐.

- 실제로 중국 식품을 믿지 못해 홍콩에서 쇼핑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 예로 멜라민 파동의 주요 제품인 분유를 사기 위해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들이 홍콩을 방문해 홍콩 슈퍼마켓과 약국의 분유를 사재기해 홍콩 분유 품질현상이 발생했음.
- 또한 지난 10월 유엔도 중국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엄격한 식품관리규정 제정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함.

□ 주요 6개 조항

의무 규정	내용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왜곡금지	제조일자·유통기한을 조작할 경우 최대 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든 식품 상에는 제품명·생산지·생산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의료기능표기금지	▲ 식품이 병 예방 또는 치료기능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기 ▲ 비건강식품이 건강식품기능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기 ▲ 식품 설명을 모호하게 표기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표기 ▲ 중국의 오성기, 국장, 인민폐를 라벨에 사용 등 모두 금지 사항임. 따라서 化痰止咳, 清热去火, 提高记忆力 등 의료기능을 가진 듯이 표시한 라벨은 모두 불법임.
'영양풍부', '강화' 표기금지	'강화' 식품으로는 비타민 A, B, C 강화, 아연, 칼슘 강화, 메티오닌 강화식품 등이 있으며 '영양풍부', '강화'라는 표기를 한 제품은 관련 기준과 함께 함유 영양소와 칼로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방부제사용표기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 첨가제는 정식명칭이 성분표기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기타 첨가물은 정식명칭 또는 분류를 표기해야 함. 첨가제 사용 정도는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함.
생산지표기	새로 제정된 식품 표기법은 생산지 표기를 행정구역 상시(市)까지 하도록 규정함.
경고문구표기	▲ 식품이 특정 소비자군에게 해가 될 경우 ▲ 식품이 이온방사선, 이온에너지로 다뤄졌을 경우 ▲ 유전자조작 식품 또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포함하는 식품일 경우 등 중국어로 경고 문구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자료원 : 國家質檢總局

□ 시사점

- 식품 개선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 - 국가 식품안전 중장기계획 요강 발표
 -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는 11월 13일 ‘국가 식품안전 중장기계획 요강(2008~20년)’을 발표함.
 - 주요 내용에 보면 ▲ 식품유통체제 개혁 ▲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책임 강화 ▲ 국가식품 안전보장 등 식품안전 강화에 최대한 중점을 뒀음.
 - 이번 요강 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최근 불량식품으로 인한 파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중국산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자 함.

- 중국 식품에 대한 각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정부는 중국 식품사태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 주요 식품 수입지인 광둥성과 협의해 오염된 식품이 홍콩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고 있으며, 유제품들은 멜라민 검사증명서 첨부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함.
 - 한국 식약청도 멜라민 함유 의심품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아직까지 식품 품질검사 수준은 미비하므로, 수입국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 한국 식품도 식품 라벨링에 주의해야
 - 식품 라벨링 규정을 3개월 앞서 시행한 만큼 중국 시장에 이미 납품한 제품들은 라벨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납품을 준비 중인 한국식품들은 상기 언급한 6가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중국 멜라민 파동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개정된 식품 라벨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식품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됨.

○ 한국 식품 기계류 중국 수출 확대 기대

- 중국 정부가 식품 안전 규정을 까다롭게 개정하면서 식품 안전 규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식품 기계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한국 식품 기계류는 기술과 품질면에서 중국산보다는 경쟁력이 있음으로 한국 식품 기계류 취급 기업에게는 수출 확대가 기대됨.

자료원 : 중국·홍콩언론종합, 홍콩무역발전국, 國家質檢總局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신 증치세잠행조례 및 영업세와 소비세조례(번역문)

신 증치세잠행조례, 영업세와 소비세조례 번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별첨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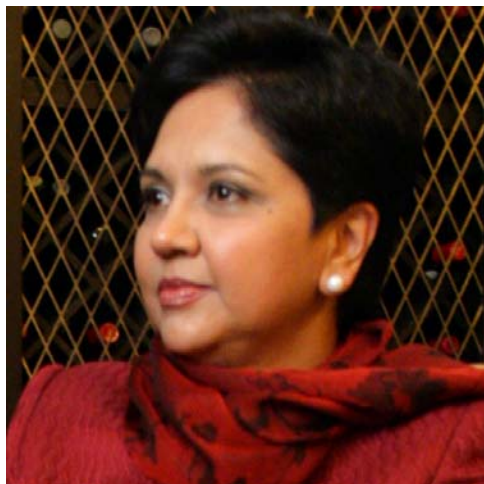
中, 흔들리는 음료시장 노리는 외자기업

- 펩시그룹 중국시장의 현지화 위해 10억 달러 투자 -
- 중국 내자기업 소비자 신뢰도회복이 가장 중요, 생산공정 공개 -
- 일본의 아사히우유와 한국의 서울우유, 중국의 고급 우유시장 문 두들겨 -

KOTRA 청다오KBC 김병호(ivviivvi@kotra.or.kr)

□ 중국투자 확대하는 외자음료기업, 중국투자는 지금이 기회

- 펩시그룹, 중국시장의 현지화 위해 4년간 10억 달러 투자할 계획
 - 펩시콜라 사장겸 수석 집행관인 IndraNooyi는 “앞으로 4년간 중국 시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펩시콜라의 IndraNooyi는 중국은 미국을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금의 중국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고, 언제나 중국시장에서의 현지화를 꿈꿔왔다고 전했다.



자료원 : 중국증권망www.cnstock.com

- 펩시는 앞으로 중국 각 지역에 음료공장과 식품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시장과 유통경로의 개발·농업발전과 연구개발영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시장발전이 둔한 연해지역보다는 중국 서부의 발달규모가 작은 지역에 진출해 시장을 일궈낼 것이라고 했음.

○ 코카콜라의 후이위엔인수, 펩시는 네슬레 인수할까

- 펩시의 영원한 라이벌인 코카콜라가 2008년 9월 180억 홍콩위안을 들여 후이위엔음료의 인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코카콜라의 중국 진출 30년 이래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인수합병의 시도로, 아직 중국 상무부의 심사결과를 남겨두고 있음.
- 이에 따라 펩시에서는 20년 전에 중국에 진출해 상하이타이타이러 그룹과 스완하오지그룹·내몽고의 메이루유제품공장을 인수한 중국 네슬레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네슬레 측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힘.

○ Sidel그룹 중국에 3500만 유로 투자

- 프랑스의 대형 음료용기인 PET병 제조회사인 Sidel그룹 총재 Mart Tiismann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럽지역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있으나, 중국의 생산량은 줄일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이 그룹의 3대 생산기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 Mart Tiismann은 총 3500만 유로를 투자해 북경지역에 새로운 생산공장을 건설할 것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네슬레, 칭다오에 신제품 제조라인 건설

- 네슬레 역시 전 세계 판매량에서 중국의 비중이 현재 30% 수준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44~4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내몽고와 칭다오지역에 새로 출시하게 될 신제품의 생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외자식음료 업계, 중국의 식품안전검역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

- 식품관련업계의 중국시장 진출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식품안전
 - Fonterra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규모의 유제품 제조기업으로, 2005년 12월에 8억6400만 위안을 투자해 중국 스좌왕의 산루그룹 지분 43%를 매입했음. 이는 당시 외자기업의 중국 내 유제품 기업에 투자한 최대규모였으며, Fonterra 역시 중국의 광활한 시장을 개척하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무서운 속도로 중국 내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했음.
 - Fonterra는 산루그룹의 브랜드와 유통망을 통해 Fonterra 고유의 브랜드인 ‘안만’·‘안즈’ 제품을 중국내에서 유통하게 되며, 산루그룹과 함께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고급유제품 제공을 위해 우유원료의 심가공 지역을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이전해 중국을 Fonterra의 원료가공기지로 발전시킴.

Fonterra그룹의 제품 ‘안만’ 분유



자료원 : 중국검색포털 바이두

- 하지만 Fonterra측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산루분유의 멜라민 검출과동 이후 이러한 계획은 한 순간에 무너졌으며, 아직 확실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식품안전사건은 2005년도 KFC가 겪었던 수단홍사건이나 네슬레의 분유 요오드 초과검출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전했으며, 회복기간이 대략 3년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Fonterra 그룹 중국에서의 사업철수 더 극복의지 나타내
 - 중국 진출 20년의 Fonterra는 허베이지역에 젓소 3000마리 규모의 목장건설계획의 철회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중국에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오랜 시간 광밍우유나 회이위엔과 같은 중국기업들과 합작의 아픔을 겪었던 Danone 역시, 독자기업 형태로 중국의 유제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 내자기업과의 합작관계 유지 또한 매우 중요해
 - 중국에 진출한 Fonterra나 Danone과 같은 외자식품회사 중에서 중국 내자기업과의 합작기업이 많으며, 그 중 상당수 기업이 합작관계에 대한 청산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식품안전관리부분 외에도 협력사와의 관계유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며, 최근 와하하와 분쟁을 겪고 있는 Danone의 경우, 이전에도 중국의 광밍우유나 명니우·후이위엔음료회사와 수차례 분쟁을 일으켜 합작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고 밝힘.

□ 중국 내자기업의 우유시장 지키기, 신뢰도 회복이 관건

- 중국 내자기업 이리 명니우의 시장 지키기, 신뢰도 회복이 관건
 - 명니우, 이리 중국 양대 유제품업체, 각종 평가기준과 검사기준 설정
 - 중국 양대 유제품업체인 명니우와 이리그룹은 중국 유제품의 질량을 높이기 위해 원유의 품질과 각종 검사기준을 도입해 실시해 왔으며, 최근 두 기업의 유제품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힘.
 - 이들 기업에서는 3단계의 검측시스템을 도입해, 직접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의 확인을 통해 유제품의 안전한 생산과정을 확인시키고 있음.

- 일본 아사히우유, 중국 산둥성에서 고품격우유 출시
 - 일본의 아사히맥주와 스미모토화학·이토츄상사는2006년 5월부터 중국의 고급우유시장 진출을 위해 15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중국 산둥성의 라이양 지역에 ‘아사히녹원농업원’의 건설을 추진했음.
 - 이후 2008년 4월 일본의 아사히맥주와 이토츄상사에서 산둥아사히녹원유업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내 최고급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중국 젖소가 아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젖소 400마리를 들여와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토츄상사 관계자는 전했다.

- 한국의 서울우유, 당일통관으로 중국진출의 문 열어
 - 아사히우유의 출시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서울우유가 코트라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당일 통관으로 중국에 들어왔으며,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지역의 고급 프리미엄우유로 판매 중

당일통관으로 수입돼 칭다오 식품매장에 진열된 서울우유



자료원 : 코트라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내자기업 상품인 광밍우유와 중국 내 외자기업인 아사히우유·한국 대표브랜드인 서울우유의 3파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 세 우유의 가격경쟁력에서 중국광밍우유가 12위안, 아사히우유가 24위안, 한국의 서울우유가 32위안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모 유명

유제품제조회사등 식품 관련 업체들도 코트라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중국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 경제관찰보, 21세기경제보도, 이토츠허사 등 관련자료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中 광둥성 투자 홍콩제조업 경영 악화 심각

- SARS 때보다 심각, 1만 여개사 도산 -
- 광둥성 정부와 지속 협상, 인도, 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 -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이 보고서는 광둥성 투자 홍콩기업 동향에 대해 홍콩중화제조업연합회 F.C.Lo 부회장과 인터뷰와 신문기사를 종합해 작성한 것임.

□ 홍콩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인터뷰

○ 최근 광둥성 투자 홍콩제조업 동향은 어떠한가?

- 광둥성 투자 홍콩 제조업들은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SARS 때보다 더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음. 대부분 완구, 전자부품,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수출지향 가공업으로 금융위기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로 심각한 도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동관 소재 홍콩 완구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최근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의 주문이 약 30~50% 감소했으며, 제품 측정기준 강화로 원가가 약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임.

○ 광둥성 홍콩 제조업 기업들은 현 사태(금융위기, 중국 비즈니스환경 악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산둥성 지역의 한국기업들과 같이 야반도주하는 경우는 드무나 많은 기업들이 폐업하고 있음. 회원사들도 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음.
- 폐업하지 않으면 감원을 통해 기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확장을 자제하고 있으며, 업종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도 출현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는 홍콩기업들도 현재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실제 도산하는 홍콩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1만여 개의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기업은 폐업하지 않고 규모를 축소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7만여개(1000만명 근무) 주강 삼각주 소재 홍콩 제조기업 중 약 1/4인 1만7500여 업체가 도산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
- 홍콩 제조업의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은?
- ▲수출증치세 환급률 감소 ▲ 인민폐 절승 ▲ 원자재값 상승 ▲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 신노동법 시행 등 5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음. 특히 신노동법 시행은 임금 상승, 기업 운영 경직 등 홍콩 제조업에 가장 큰 고충이 되고 있음.
- 이번에 회원사를 데리고 북한을 다녀오셨는데 목적과 성과는?
- 이번 북한 무역사절단은 북한총영사관의 제의로 추진됐으며, 약 20명의 회원사를 데리고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왔음.
 - 무역사절단의 북한 방문 목적은 최근 중국 비즈니스 환경 악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 개척 차원에서 진행됐음. 사절단은 북한의 비즈니스 환경을 시찰했으며, 북한 기업들과 1 대 1 비즈니스 미팅도 했음. 또한 북한 상공회의소와 박람회 공동 참가,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MOU도 체결했음.
 - 향후 북한의 변화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홍콩 제조업 도산 사태 최소화를 위해 연합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연합회는 주로 새로운 중국 비즈니스 환경변화 정보를 신속하게 회원사에 전달하고, 그들의 고충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신노동법과 관련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대처방안, 주의사항 등을 회원사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광둥성 정부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하는가?
- 광둥성 정부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광둥성 정부는 홍콩기업들이 광둥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바라며, 홍콩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도 이를 어기고 변경하기가 어려움 실정임.
 - 특히 동관지역은 홍콩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만약 동관 지역의 홍콩 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한다면 동관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름. 따라서 최근 동관시 정부는 수십억원 위안을 투입해 홍콩 기업들의 이탈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음.
-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 개척을 위한 다른 노력은?
- 연합회는 현재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where is the market?)”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음. 이번에 무역사절단을 조직해 북한을 다녀온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임.
 - 광둥성 홍콩 기업들의 주요 수출지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감하자 홍콩 기업들은 내수시장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이에 연합회는 회원사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중임.
 - 얼마 전에는 일본 나고야의 한 협회와 협업하여 세미나 및 일본기업과 회원사간의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했음.
-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은 아직도 홍콩기업들에게 규제가 많은(too protective) 곳임. 진입 장벽이 높아 홍콩 제조업들은 한국 투자를 고려하기 어려움.
 - 하지만 홍콩 기업들은 개방적(Open Mind)이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할 것임.

○ 내년도 주강삼각주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 내년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제도적인 면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경제가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경제도 예전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주강삼각주의 홍콩 제조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 이 난관을 극복하기를 희망함.

□ 광둥성 정부의 홍콩기업 지원책

○ 심천시의 10대 홍콩기업 지원책

연번	내용
1	중국 은행의 홍콩기업들에 대한 대출장려, 심천정부 10억 위안 보조금 준비
2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신용 펀드의 도입 →기업들과 은행들간의 상호공조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증진
4	심천정부의 홍콩기업들의 개선 및향상을 위한 30억 위안의 예산 마련
5	심천정부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홍콩기업들의 수출을 보조할 계획
6	수출 시 선적비·운송비 등의 행정처리비용 삭감 계획, 심천정부는 5억 위안 지출 계획
7	전력회사들의 전기세 인상을 억제하고, 대신 20억 위안의 예산을 보상금으로 마련
8	모든 종류의 기업들의 요금 지출을 경감시키게 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
9	홍콩 기업들의 사업개발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10	100여 명의 기업문제 전문가들을 파견해 홍콩기업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둥관시의 홍콩기업 지원책

연번	지원책	내용
1	산업전형승급기금 10억 원투입	○ 외자기업설립연구개발기구, 심사비용 전면 보조

		○ 내수시장 개척, 총 내수 소득세 10%장려, 각 기업 최고 100만 위안까지 혜택
2	중소기업 및 가공무역용자기금10억 위안 투입	○ 기업대출 2%이자보조, 각 기업 매년 최고 50만 위안대출이자 보조 수혜, 최고 2500만 위안까지 대출가능. ○ 은행대출위험부담보상
3	매년 과학기술기금 10억, 창업기금 10억 투입	○ 과학기술동관 :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장려, 각 기업 100만~500만의 일회성 자금보조 획득 가능, 연구개발비용 보조, 각 기업 매년 최고 600만원까지 획득가능 ○ 창업동관 : 기업에 동관 전문가 초청 지원, 승급 고문
4	기업행정사업비용 절감	○ 용지사용비, 제방시설비 등취소, 정부 매년 세수 16억 원 감소
5	가공업 보증금 제공	○ 위탁가공기업 자금부담 10억 원 감소 정부 담보설정, 직접 자금 유용할 필요 없음
6	가공업 삼자기업으로 전환	○ 심사 절차처리 신속화
7	내수 고속 통로 개척	○ 내수 각종 심사절차 신속화, 내수시장 개척용이
8	항구 보세물류센터 설립, 물류비용 절감	○ 창핑 등에 보세창고와 수출감시관리창고를 설립해 기업의 창고비용 절감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광둥성 소재 한국 제조업 동향

○ 약 30% 인력 감원

- 광둥성 동관에서 완구를 제조하고 있는 한 기업에 따르면 현재 사무직은 약 30%를 감원했으며, 일용직은 약 50%를 감원했다고 함. 경기가 악화되면 추가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함.
- 한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본, 대만 기업들도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공장과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함.
- 신노동법 시행으로 감원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기본급 3개월 치를 주고 장기 휴가를 보내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운영비 절감, 내수시장 진출 모색

- 광둥성 소재 한국 제조기업은 해외 시장에 집중하는 수출지향형이었으나 세계 경기 침체로 해외 바이어들의 수요가 급감하자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내수 비중을 확대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감원과 운영비 절감을 통해 중국 제품들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를 줄이고, 품질로써 승부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킹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 홍콩중화제조업연합회 부회장 및 한국기업 인터뷰, 홍콩언론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中, 쓰촨성 '11가지 조치, 3조 위안 투자'로 내수 진작 나서

- 지진 복구사업과 쓰촨성 전략산업에 관심 가져야 -

KOTRA 청두KBC 이영준 관장(ctuktc@kotra.or.kr)

□ '내수확대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발표

○ 쓰촨성 정부는 2008년 11월 18일 이 '의견'을 발표하고 11가지 방면의 정책 실시를 통해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 ▷ 지진 복구사업 가속화 ▷ 철도, 도로 및 공항 등 대형 인프라 건설
▷ 농업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 자주혁신 및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와 생태환경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 서비스업 회복 발전 가속화 ▷ 대형 민생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 농민 및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계층 수입 제고 ▷ 재정·금융 업무 강화
▷ 개방과 협력 심화 ▷ 중요 부문 및 중점 영역의 개혁 촉진 등 11가지 정책 실시

○ 2010년까지 3조 위안 이상 투자

- 11가지 정책 실시를 위해 2008년 연말까지 7900억 위안(연초 예산에서 800위안 증가) 규모의 투자를 완료하고, 2009년에는 1조2000억 위안 좌우, 2010년에도 1조 위안 이상을 투자해 2010년까지 누계액 기준 3조 위안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 11가지 조치 주요 내용

○ 지진 복구사업 가속화, 연말까지 3600억 위안 투자 완료

- '지진복구 종합규획'과 '10가지 전문 항목 규획(생산력 배치 및 산업 구조, 토지이용, 시장 서비스 체계, 생태회복, 농촌건설, 도시 체계,

도농주택건설, 공공서비스시설, 방지?감소 재난, 기초시설)’을 통해 지진 복구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임.

- 현재4580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새로이 20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으로 2008년 연말까지 3600억 위안 정도를 투자할 예정임.

○ 철도, 도로 및 공항 등대형 인프라 건설

- 서부지역의 종합교통의 중추 건설을 위해 철도, 고속도로, 외부 성과의 연결도로, 공항, 수리시설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할 예정임.
- 이미 건설이 확정된 ‘청두-뽀장엔’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두-란저우 철도, 청두-멘양-러싼 철도, 청두 철도 신 역사, 이뻬-루저우-충칭 고속도로 등 비준 획득 후 건설을 시작하고자 함.
- 2008년 연말까지 750억 위안 정도를 투자할 예정임(원래 계획보다 34억 위안이 증가한 규모임).

○ 농업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 논밭 정돈 및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한 농업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해 종합 농업 생산력을 제고하고자 함. 농업산업화 경영 촉진, 10대 상위 특색 작목 기지(식용기름, 특색과일 및 채소, 식용버섯, 차잎, 중약재, 목죽, 담배잎, 누에 빵, 화훼, 바이오 에너지원) 건설, 농업산업화 선두기업 육성, 목축업의 현대화, 돼지 사육수 1억 두 이상을 유지하고자 함.
- 2008년 연말까지 1200억 위안 정도를 투자할 예정임.

○ 자주 혁신 및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7+3 산업발전(전자정보, 장비제조, 에너지원 전력, 석유가스 화공, 마나뿔·티타늄·철강, 음료식품, 현대중약 등 7가지 상위 산업과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 바이어공정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산업) 기획’ 실시로 특색 상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특히 수력발전, 천연가스, 마나뿔 및 티타늄 등 3대 중점 전략 자원의 프로젝트 건설 강화.

- 창흥PDP 2기, 열중(二重)의 대형 단조 금형, 룡망(龍蟒) 그룹의 50만 톤 인산염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중소기업 투자 및 융자 담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임.
 - 2008년까지 2774억 위안을 투자 완료할 예정임.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배출 감소와 생태환경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 10대 에너지절약공정 추진 가속화, 순환경제 시범지역의 성공적 추진, 천연자원 보호, 사막화 방지, 삼협댐 지역 수질 오염방지, 농촌 매탄가스 저장시설 건설, 도시 오수 및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칭짱고원 동남지역 생태환경보호 및 건설, 지질 재해 방지 강화 등
 - 2008년 연말까지 141억 위안 투자 완료할 예정임(원래 계획보다 18억 위안 증가).
- 서비스 산업 발전 가속화
- 생산성·민생성 서비스업, 서비스 아웃소싱 등의 발전 가속화, 현대 물류 배송 시스템 건설, 유통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도농 서비스 체계를 완벽히 하고 상업유통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또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여행업,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등을 촉진할 계획임.
 - 2008년 연말까지 1800억 위안 정도를 투자할 예정임.
- 대형 민생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 8대 민생 공정(취업촉진, 빈민 보조, 교육보조, 사회보장, 의료위생, 거주 주택보장, 도로 확대, 환경정돈), 富民安康 공정, 아빠(阿壩)주 빈민 보조 및 개발, 티베트 지역목민 안정 거주 행동 계획, 이족 주택 개조 행동계획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의료 위생 서비스 및 산악제한, 농촌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시, 농촌학교 개조, 중등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발전, 농촌 문화센터 건설 등의 가속화 실시
 - 2008년까지 432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임(전년대비 64억 위안이 증가).

○ 농민 및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계층 수입 제고

- 취업기회 확대, 곡식 최저 수매가 인상, 농기계 구입보조금 지원, 농산물 수매사업 확대, 최저생활보조금 증대, 농민공 및 직공 급여 인상 및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08년 한 해 동안 740억 위안의 재정을 지원(전년대비 120억 위안 증가)할 예정임.
- 저소득 계층의 소득 제고와 동시에 소비영역 확대, 소비신용대출 발전, 소비수요 촉진 및 유도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 금융사업 강화

- △ 세수 감독관리 강화, 재정 지출구조 최적화로 재정수입 증가 및 지출절감사업 대대적 실시 △ 농민 및 중소기업? 지진재건 및 중점 프로젝트의 신용대출지원 강화 △ 농민의 용자 및 소액신용대출 확대 △ 농촌금융시스템 건설 가속화 △ 상장, 증자, 채권발행 등 자본 시장 활용 극대화 △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산 증권화 시범 사업 실시 등 진행

○ 개방 및 협력 심화

- 자원우위, 시장우위, 부대산업 우위, 지진 복구사업 정책 등을 최대한 이용해 투자를 유치하고 동부지역의 산업 이전을 적극 대비하고자 함. 지역 간의 심도 있는 협력 전개, 청위(成渝)경제구 건설 적극 추진, 지진재건 일대일 지원을 이용해 투자유치활동 지속 전개.
- 대외무역 발전 장려, 해외시장 개척지원, 대외 프로젝트 도급 및 노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중요 부문 및 중점 영역의 개혁 촉진

- 국유기업 개혁 심화,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추진, 수자원 이용료 인상,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및 오염물 배출비용 개혁, 의료위생보장 시스템 개혁, '도농 통합 종합개혁 시범구' 사업 성공적 완수, 농촌개혁 심화, 자원개발 시스템 혁신 등 추진.

□ 시사점 및 주목할 분야

- 쓰촨성 정부는 지진 복구 사업과 내수 확대 정책을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 쓰촨성 정부가 발표한 ‘3조 위안 투자 내수 진작’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언급된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2009년도 정부 사업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진 복구사업과 관련된 유망진출분야(건축자재, 공정기계, 전력통신 설비, 생활 가전, 공장 재건 관련 하이테크 기계 및 장비 등)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장비 및 공정기계, 농업의 현대화를 이끌 수 있는 목축설비 및 농기계, 쓰촨성의 성장 동력인 ‘7+3산업’과 관련된 기계설비 및 각종 장비, 부품(부품)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사천신문망, 성도상보 등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단신뉴스]

세계은행, 中 2009년 GDP 성장률 7.5% 전망

- 세계은행이 25일 발표한 《중국경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중국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업 침체 지속으로 올해의 9.4%에서 7.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GDP 성장률 7.5%는 1990년(3.8%) 이래 최저치로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였던 1999년(7.6%)보다도 낮은 전망치임.
 - 세계은행 루이스 퀴즈스(Louis Kuijs)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민영 부문 투자 전망이 상반기보다 더 불투명해 졌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와 부동산시장 붕괴 등 내수시장침체의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중국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함.

- 최근 중국이 발표한 4조위안(5,8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에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분석함.

주요기관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증감율)

기관	전망치	
	2008년	2009년
세계은행	9.4	7.5
IMF	9.7	8.5
OECD	9.5	8.0
모건스탠리	9.8	8.2
글로벌 인사이트	8.7	7.2

자료원 : China Daily, KIEP 등 자료 종합 정리

자료원 : China Daily('08.11.26)등 현지 언론 종합

자료정리 : KOTRA 중국지역본부

[금주의 연구보고서]

올해 해외시장 강타한 히트상품은?

- 친환경, 에너지절감, 다기능융합, DIY 제품 인기몰이 -

KOTRA 통상전략팀 정덕래 과장(drjeong@kotra.or.kr)

‘하이브리드카, 태양열온수시스템, 스마트폰, 저가미니노트북, PB상품...’ 올해 세계시장을 휩쓴 히트상품들이다.

KOTRA는 최근 해외 주요시장 21개국의 금년도 히트상품 150개 품목을 조사하고 히트요인을 분석한 ‘키워드로 살펴보는 2008년 글로벌 히트상품’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친환경, 에너지절감, 다기능융합, 소비자참여 등을 올해 해외시장을 강타한 히트상품의 공통분모로 들었다.

◇ 친환경과 에너지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와 도심혼잡세가 차별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교통정책 강화는 Toyota Prius 등 배기가스가 적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를 몰고 왔다. 멕시코의 경우도 유가상승으로 연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형차량과 SUV차량의 판매가 감소하고 Nissan Tsuru같은 고연비의 소형차량이 잘 팔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버렸을 때 미생물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1회용 용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1회용 용기에 비해 가격이 보통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높지만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강화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스템, 실외등, 전지판 등 재생에너지 이용 제품 수요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전구의 경우 절전형 제품인 LED 전구가 기존 제품을 급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 디지털제품은 다기능융합으로 通한다 (컨버전스)

‘닌텐도 Wii Fit(위핏)’은 청소년 중심의 게임시장을 전 연령층으로 확장시킨 획기적인 제품이다. ‘위핏’은 밸런스 보드에 장착된 센서로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요가, 에어로빅 등 40여 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운동과 재미’를 융합하여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핸드폰의 경우, PC처럼 운영체제(OS)를 탑재해 응용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하나의 작은 컴퓨터와 같아서 PDF, MS office 등 다양한 포맷의 문서를 읽는 기능도 지원하며 사용자편의성을 강화한 입력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3G, RIM의 블랙베리, 노키아의 N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우리 브랜드로는 휴대폰 하나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가능한 삼성 듀얼 심(SIM)카드폰이 터키,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비즈니스용과 개인용 휴대폰을 별도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mazon사가 내놓은 고화질 스크린의 전자책 리더기 Amazon Kindle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종이책 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인터넷서점을 접속해 전자책과 신문을 다운받을 수 있고, 200권 분량의 책을 저장할 수 있어 소위 ‘휴대용 도서관’이라 불리고 있다.

◇ 노트북은 값싸고 간단한 제품이 뜨네 (디버전스)

노트북은 고기능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핵심기능만 탑재된 저렴한 제품이 인기다. 특히 Asus, Acer 등 대만브랜드가 400~600불대의 저렴한 제품으로 미니노트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도 Positivo사가 출시한 400불대의 미니노트북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소비자가 직접 한다 (DIY)

미국과 홍콩에서는 평소 손발톱손질 서비스를 받으려고 찾던 미용샵 방문을 줄이고 직접 손질하는 여성소비자가 늘면서 손발톱손질 셀프케어 세트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DIY형 제품의 수요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지출감소뿐 아니라 식품위생·친환경의식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호주에서는 식품위생이 이슈화되면서 가정용 두유제조기가 잘 팔리고 있고, 영국에서는 폐기된 의류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자 중고 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한 가정용재봉틀 판매가 늘고 있다.

◇ 불황 깊어지고 물가 상승하니 이런 현상도

멕시코에서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을 담보로 150불 이하의 소액대출을 해주는 전당포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물가양등으로 인터넷 무료쿠폰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의 무료쿠폰 다운로드수가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물가상승과 소비심리위축을 이용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이 출시하는 저렴한 가격의 자체브랜드(PB)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 일본 최대의 종합 유통사 SEVEN & i Holdings사가 개발한 자체브랜드 SEVEN PREMIUM이 대표적이다.

◇ 소비자 눈 돌아가게 하는 아이디어 상품

이슬람교 신자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종종 메카 방향을 몰라 애먹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

에 착안해서 나온 제품이 메카방향을 꼭 찍어주는 나침반달린 기도용 카펫이다. 또한 정해진 기도시간을 알려주고 절하는 횟수까지 측정해주는 전자계측기도 출시되어 터키 등 이슬람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에서는 내장비만 신드롬을 타고 출시된 기능성 속옷이 인기다. 이 제품을 착용하면 근육에 자극을 주어 자연스럽게 보폭이 넓어져 운동량이 늘어나고 보디라인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비만 등 성인병을 걱정하는 남녀 소비자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UAE에서는 영어에 미숙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의 아랍어 내비게이션이 크게 어필하고 있다. 제품현지화로 틈새시장을 개척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KOTRA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해외시장의 특수한 상황과 소비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 진화 방향에 맞는 제품개발과 틈새시장공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올해 해외시장 강타한 히트상품은?

/끝/

투자진출 A to Z

현지 투자법인 합병 절차는?

문의)

저희 회사는 중국 모성 모지역에 3개의 현지법인에 100% 지분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개 법인을 1개 법인으로 흡수합병을 하고자 합니다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A회사(전공정), B회사(후공정), C회사(최종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공업단지내에 있습니다.

3개사의 설립연도는 2003년 3월경이며, A사와 B사는 설립초기 C사(당사의 최초 투자법인)의 협력사로 독립적으로 동반진출(투자)하였으나, 2008년 4월 C사의 한국법인(당사)이 A사와 B사의 지분 100%를 인수함에 따라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협지법인을 합병코자 합니다.

1. 현재 상기 3개 법인의 투자자와 경영범위가 같은데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2. 피합병 회사(A사, B사)가 받고 있는 면세설비 또는 소득세감면 등 세무적인 면은 문제가 없는지요(계속 면세 및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소급 추정되는지?)
3. 상기 3개 법인 모두 누적 적자가 많은데 합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4. 합병을 진행한다면 어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귀사에서 문의한 회사합병 사항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과<외상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귀서 소재 도시 대외경제무역국의 문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종합 답변 드립니다.

1. 대외경제무역국의 답변에 따르면 회사간 합병할 수 있고 회사합병의 주요 절차는 <외상투자 기업 합병과 분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바 주요한 합병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측 회사가 신청인으로 대외경제무역국에 신청합니다.
- (2) 대외경제무역국은 45일내에 서면형식으로 초보적인 비준을 내립니다.
- (3)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초보적인 비준을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내에 전국에서 발행하는 성급 이상 신문에 최소 3차 공고하여야 합니다.
- (4) 회사의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제1차 공고일부터 90일내에 회사에 채무승계 방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회사가 채무를 청산 혹은 상응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5) 제1차 공고일부터 90일 후 회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대외경제무역국에 합병을 신청합니다.
- (6) 대외경제무역국은 30일내에 회사합병 비준여부를 결정합니다.
- (7) 신청인은 대외경제무역국에서 합병을 비준한 날부터 30일내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반납 폐기, 변경 혹은 수령 관련 수속을 진행합니다.
- (8) 공상국에서 말소, 변경 혹은 설립등기 관련 수속을 처리합니다.
- (9) 사업자등록증 변경 혹은 수령 일부터 30일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채무자, 채권자 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전국에서 발행한 성급 이상 신문에 공고합니다.

(10) 사업자등록증 교환발급 혹은 수령 일부터 30일내에 세무, 세관, 토지관리와 외환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상응한 등기수속을 진행합니다.

2. 외상투자기업 우대 향유 가능 여부에 관하여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리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 혹은 신설 회사는 심사비준기관, 세관, 세무 등 부서의 심사를 거쳐 원 회사에서 향유한 각종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계속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단, 대외경제무역국 관련 담당자는 회사합병 후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계속 향유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없고 구체적으로 업무처리시 확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제1차 공고일부터 90일내에 회사에 채무승계 방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회사가 채무를 청산 혹은 상응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제1차 공고일부터 90일 후 회사 채권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신청인은 대외경제무역국에 회사합병을 신청합니다.

4. 회사합병에 언급되는 상응한 법률문제가 비교적 전문적이고 기한과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하기에 변호사, 혹은 회계사 등 전문가에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KBC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송성철 고문변호사)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조업중단일의 임금지급문제

문의1)

현재 자동차 업계가 20 ~ 30% 이상 감산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 회사도 감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감원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작업일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무노동시의 임금지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시에 작업자(일급직)의 급여는 지불해야 하는지요? 현재까지 정전이 된다면 해서 작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작업자는 일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기본급 기준)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업자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회사의 주문량 감소로 작업일 축소를 실시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말썬이 될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사전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1)

노동법의 원칙하에 말씀드리자면, 상기 귀사의 방법은 위법입니다. 노동자측의 사유로 개인휴가를 낼 때, 그 일수는 일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사측 사유로 일을 시키지 않은 날을 공제하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작업자들이 이해를 한다 해도 이들이 나중에 퇴직시 노동쟁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임금의 공제는 노동법에서 엄중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상대가 이해해 주겠지 하는 희망 섞인 생각으로 노무관리하기 보다는 현재 중국 전체기업의 경영상황이 안 좋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아예 서면으로 청가(개인휴가)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질문)

노동법 관련하여 대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월급직 사원을 2개월(2008.12.1 ~ 2009.02.01)을 휴가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월급직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답) 산동성 규정에 의거, 완전 작업중단 기간에는 첫번째 임금지급 주기에는 정상임금, 그 다음 임금지급주기부터는 최저임금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직 사원을 위와 같이 휴가를 보내면 매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답) 시급직 사원도 비전일제가 아닌, 풀타임 노동자였다면, 상기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노동합동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직무, 봉급을 조정(감봉)하려고 하나,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떠한 근거 때문인지요?

(답) 노동합동 만기시점에서, 회사 사정으로 노동조건을 하향조정하고, 이 때문에 노동자가 사직할 때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므로, 금년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에 의거,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단, 그 계산시점은 2008년 1월 부터임).

<유사 질의응답 사례 1>

(질문)

우리회사 노동 합동 계약기간은 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 올해 2008.1. 1 ~ 12. 31(1년 서면 합동 계약)까지 노동합동 체결한 여자 공인들에게 내년도 노동합동 계약연장 의향조사를 실시 하면서, 올해보다 조금 높은 보수조건을 제시 했으나, 내년 초(양력 2 ~ 3월 이내)에 결혼으로 회사 사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노동합동 계약 연장을 안하고 사직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공인들께 당연히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지요?

(답)

노동계약 만기시점에 현 노동조건을 유지, 또는 그보다 나은 수준을 제시했어도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참고: 노동계약법에 의거, 금년부터는 계약 만기시점에 사측 사정으로 고용종료시, 2008년 1월부터 계산한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측 원인으로 그만둘 때는 적용되지 않음)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

46조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5)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에 약정한 조건을 유지 또는 상향하여 노동계약을 갱신하고자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속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유사 질의응답 사례 2>

(질문)

저희 회사는 공인들의 일당을 기본급 760위엔에 근거하여 하루 35위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이 많이 감소하여 현재의 인원을 감원을 할까 생각하다가 주 4일 근무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주 4일 근무시 월평균 21.75일이 되지 않아 공인들 중 최저 임금 760위엔을 받지 못하는 공인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모자라 일급 합계월급이 최저 임금(760위엔)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최저 임금 760위엔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조업단축시는 단축실시한 그 달은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협의, 약정하여 그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수준까지 낮추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아예 조업중단시는 그 달은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협의, 약정하여 그 다음달 부터 최저임금의 70%까지 낮추어 지급할 수 있다(산동성 청도시 경우는 80%)
3. 상기 귀사의 임금은 당지 최저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예 조업을 중단했다면 최저임금의 70%까지 노동자와 협의하여, 줄 수도 있으나, 한 시간이라도 조업을 시킬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중앙의 기본 규정 >

1994년 노동부의<임금지급잠행규정>제12조 "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측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조업정지가 발생하고, 당해임금주기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약정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해 임금지불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을 때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당해 지방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산동성 기업임금지급규정> 제31조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기업이 조업정지, 생산정지, 휴업했을 경우, 하나의 임금주기내에서는 기업은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해 임금지급주기를 초과하고, 만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켰을 경우, 쌍방이 새롭게 약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나, 단,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만일 기업이 작업을 시키지 않았고, 또한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가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 기준의 70%를 노동자의 기본생활비로 지급해야 한다.

<유사 질의응답 사례 3>

(질문)

조업단축시 산동성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사가 입수한 청도시 임금규정에 따르면 8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청도시 임금규정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

회사 소재지의 임금규정이 존재할 시는 우선적으로 소재지역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가 적용됩니다. 청도시 소재기업의 경우, 생산경영상 곤란으로 잠시직원을 휴무시킬 시, 휴무 발생일의 그 다음 월급주기부터 청도시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도시 임금지급 규정>

青岛市企业工资支付规定(青岛市政府2004年)

第二十一条用人单位因生产经营暂时困难安排职工待岗, 未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的, 用人单位应当按照劳动合同约定的标准支付劳动者工资; 超过一个工资支付周期的, 经与劳动者协商一致, 可以降低工资支付标准, 但是不应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80%; 协商不成的, 双方可以解除劳动合同, 用人单位按照规定支付经济补偿金。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공지사항1]

kotra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정부 투자진출 포털사이트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T, KIEP 등 31개
해외투자진출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
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외투자 Q&A](#)에 올려 주세요.

OIS(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통합포털사이트입니다.

[공지사항2]

베이징 투자환경 설명회 및 산업교류회 참가 안내

최근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시에서 '05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베이징 투자 환경 설명회 및 산업교류회를 오는 12월 4일 서울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림픽 이후의 베이징시의 새로운 경제 환경과 비즈니스 기회에 역점을 두며 정보서비스 및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 생물의약산업 등 4개 분야에 관한 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간의 전면적인 합작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시는 중국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특히, 올림픽 이후, 텐진 빈해신구와 하북성을 아우르는 중국 화동 및 환발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성공적 투자 진출여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이어서 관심 있는 우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3회 한국기업 북경 투자 세미나
- 일 시 : 2008. 12. 4 (목), 09:00-13:30 (오찬연회 포함)
- 장 소 : 서울 명동 롯데호텔
- 주 최 : 베이징시 정부
- 주 관 : 베이징시 상무부, 공업촉진국, 투자촉진국, KOTRA

■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 09:00 - 09:30 참석자 등록
- 09:30 - 10:30 개회식 및 설명회
- 10:40 - 12:30 산업 교류회 (IT서비스, 생물의약, 환경 에너지, 자동차 부품)
- 12:40 - 13:30 오찬

■ 참가신청 (무료, 선착순) : 첨부 양식을 작성 후, 송부

■ 신청접수 및 문의처

구 분	담당자	전화/팩스	e-mail
KOTRA 해외투자전략팀	권주희 사원	Tel: 02-3460-7354 Fax: 02-3460-7950	fellicia@kotra.or.kr
KOTRA 베이징KBC	정성화 차장	Tel: 8610-6410-6162 Fax: 8610-6505-2310	chinakotra@gmail.com

* 행사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참가 신청서를 상기 팩스 및 이메일로 우선 송부 요망

※ 첨부 : 행사내용 및 장소 안내, 베이징설명회 참가신청서 각 1부